17개 시도 태권도협회와 협력 강화

태권도재단, 태권도원 팸투어 추진
대전·경남·서울서 차례로 방문
수련 콘텐츠 견학·간담회 등 진행

올해 방문 못한 14개 시도 협회
내년 2월부터 팸투어 진행키로

지난 23일 무주군 소재 태권도원을 찾은 경남도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17개 시도 태권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원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태권도원 팸투어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시 태권도협회를 시작으로 23일 경남도 태권도협회, 26일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원을 방문해 다양한 수련 콘텐츠에 대한 견학과 체험, 도장 수련생 대상 상품 개발을 위한 수요 파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대전 협회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시도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흥미 요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경남 협회 관계자는 "재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팸투어를 진행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감사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며 팸투어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시도 및 시군구 협회를 초청해 태권도원이 가진 다양한 수련·교육·체험 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상품 개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 협회와 우리 재단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태권도원을 방문하지 못한 14개 시도 및 산하 시군구 협회는 내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를 시작으로 팸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 우승

부안군청 요트실업팀
레이스 다섯번 중 세번 1위

2위 팀 SSL KOREA
3위는 팀 리맴버가 차지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2022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안군청 요트실업팀.

부안군청이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2022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파이스트28R단체전) 요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부안군청 요트실업팀은 스키퍼 김근수, 크루 이광연, 김혜민, 김해성, 안선진 선수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요트 국가대표 김근수는 노련한 세일링으로 팀을 이끌었다.

부안군청은 다섯번의 레이스 가운데 세 번이나 1위를 차지하며 완벽한 경기운영으로 정상에 올랐다.

2위는 팀 SSL KOREA가, 3위는 팀 리맴버가 차지했다.

김총회 부안군청 요트실업팀 감독은 "올해 마지막 요트 대회에서 부안군청 팀이 우승을 장식해 너무 기쁘고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 모두의 노력이 우승으로 돌아 온 것"이라며 "선수들과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 대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처럼 전문성있는 대회가 한국 요트 발전과 요트를 사랑하는 선수, 동호인 모두에게 사랑 받는 대회로 기억 되길 바라며, 앞으로 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 대회가 전통을 가지고 아메리칸컵 과 같이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수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26~28일 남원에서 개최된 전국춘향바둑선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다.(사진 왼쪽) 지난 27일 남원에서 열린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남원서 전국대회 개최 잇따라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춘향바둑선발대회 성료

지난 주말 남원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2022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가 지난 27일 춘향골체육공원을 출발하여 남원시 일원에서 당초계획보다 300여명 많은 1,500여명의 마라톤 동호인 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대회는 5km, 10km, half, Full 코스로 80대의 최고령 참가자부터 부모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참여해 초겨울 추위도 뜨거운 참가자들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또한 사고방지를 위해 경기장, 주로, 주차장 등 주요 지점에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구급차 등을 운영해 부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전국바둑춘향바둑선발대회는 춘향골체육관 외 2개소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500여명이 참여하여 개인전, 단체전, 성인부, 어린이부 등을 합해 총 8개부문으로 치러졌다 특히, 메인대회라 할 수 있는 춘향부는 1,000만원의 우승상금이 지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맞춤형 스포츠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명품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박진감 넘치게…

정읍 단풍미인컵 전국 프로볼링대회 성료

국내 프로선수 280여명 참여
男 이명훈 · 女 안유리 우승

'2022 정읍 단풍미인컵 전국 프로볼링대회'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명훈 선수(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2022 정읍 단풍미인컵 전국 프로볼링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정읍 더원볼링장과 그린볼링장에서 열렸다.

(사)한국프로볼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280여 명의 프로선수가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6일간의 경기는 협회 공식 고품질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스트리밍 중계됐으며, 마지막 날 결승 경기는 SBS Sports TV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24일 열린 TV 파이널 결승 결과 남자 개인전에서는 이명훈 선수가 현역 최다 우승 부문 2위(11회)에 오른 김영필 선수와 맞붙어 접전 끝에 222-212로 승리를 따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신인 안유리 선수가 결승에서 지은솔 선수를 만나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잃지 않고 171-137로 무난한 승리를 따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학수 시장은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신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국으로 생방송 된 이번 경기를 통해 정읍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전북에도 청정에너지 시외 전기버스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1. 전기버스 보급은 탄소와 온실가스 저감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며 권장한 사업으로써 전주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버스를 신청하도록 요청한 사업입니다.

2. 전라북도의 시외버스 운송환경이 열악하여 타 도의 시외버스보다 운송비용은 동일한데, 운송수입은 전국 평균 대당 매년 4천 8백여만원이나 적기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휘발유 값보다 높은 경유 노후차를 대체하여 청정에너지 전기버스로 운행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3. 시외 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2022년은 물론 2023년에도 생산계획이 없으며, 전기버스는 최고속도가 90km밖에 안되므로 시외버스 노선의 경쟁에 뒤지고, 저속 운행은 승객의 비호감으로 시외버스 노선 투입이 불가하여, 시외 전기버스 수요가 전혀 없는데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4. 전북의 시외버스는 전기버스가 저속 운행 차이지만 도내 노선(100여대) 경쟁 없는 운행으로 전북도의 청정 환경과 운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기버스로 운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외로 운행하는 300여대 이상의 시외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버스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5. 수소 시외버스 경우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시외버스는 고액의 버스 값(수소버스 6억 3천만원)외에도 수소연료가 경유값보다 높고 역시 운행속도가 저속으로써 수소 시외버스도 수요가 없는데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현대자동차에서 전기 시외버스가 생산된다면 의당 우리지역 생산된 버스를 구입해야 하지만, 시외버스 차령 11년이 다 되었는데도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 전기버스에 대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검증하고 수입을 승인하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타 시·도에서 2천대 가까이 수입되어 아무런 이상과 불편없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북 시외버스업계는 고유가를 감당할 수 없어 4년 전부터 시장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11년간 사용해야 할 버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 사업입니다.

7. 국비 보조 지자체와 매칭 사업예산 삭감한 경우 5년간 동일 사업의 국고보조가 중단 되므로 우리 전북에서 5년간 이나 시외 전기버스가 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국고보조 혜택으로 타 시·도에서와 같이 청정 에너지 시외 전기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합니다.

8. 전북에서 청정에너지 전기 시외버스를 운행하려는 것은 시외버스의 건설적인 사업계획으로써, 차령이 11년 만기로 노후차의 교체시기가 되어 시급하고,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청정환경을 위한 전기버스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요청한 사업의 전기버스가 구입되게 해야 합니다.

2022. 11. 29.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장정익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임형빈
주식회사 전북고속 대표이사 사장 황의종
주식회사 전북고속노조지부 지부장 박민철
유한회사 호남고속 대표이사 사장 김병수
유한회사 호남고속노조지부 지부장 이인식
주식회사 전북여객 대표이사 사장 황의종
주식회사 전북여객노조지부 지부장 최초성
주식회사 전주고속 대표이사 사장 문상록
주식회사 전주고속노조지부 지부장 조재춘
주식회사 대한고속 대표이사 사장 전동수
주식회사 대한고속노조지부 지부장 신희원